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집 주소 생기는 날

황다진 학생리porter dadajin@naver.com 사진 조시훈 학생리porter

건축이란 이런 것, 한국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현장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겨울만큼 절실할 때가 또 있을까.

얇아지는 달력과 두꺼워지는 외투의 변덕스런 반비례 속에서도 고정불변의 온도 유지를 위해, 기를 쓰며 버티고 선 사방의 네 벽과 실재론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라면 항상 뽀족하게 하늘로 향하는 세모 지붕으로 연상되는 곳.

OO시 XX구로 시작하는 그 이름, 길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어도 대한민국 땅에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바꾸어 놓는 곳.

오늘도 밖을 헤매며 추위에 서성이는 발걸음들은 이 곳, ‘집’으로 향한다.

해비타트 세대 추첨식, 희망동과 호수를 적고 기도하는 아이들, 모두 기쁜 추첨식이 완료되고 세대별 이름표가 붙었다.



땀 의 분담으로 지어진 우리 집

지난 11월 20일 토요일, 김권기씨에게 집주소가 생겼다. 한국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를 통한 경기도 양평 소재의 건설현장에서 '홈 파트너'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한 지 대략 1년만이다. '홈 파트너'라 불리는 입주 예정자들이 곧 완공될 8개 가구가 입주 가능한 2채의 건물에 대해 희망 건물 동과 호수를 적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날의 행사는 해비타트의 Big Event Best 5종 하나로 꼽히는 '홈 파트너 세대 추첨식, 7세대의 '홈 파트너'들에게 정식으로 그들이 살 집의 구체적인 동, 호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다. '홈 파트너'들은 단순히 한국 해비타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집짓기 후원의 일방적인 수혜자만은 아니다. 그들에게 건설현장에서의 300시간 공동 봉사활동을 통한 '땀의 분담'은 의무적이기 때문이다.

권기씨를 비롯한 몇몇 홈 파트너들은 이날 현장을 찾은 세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두 명의 일반 봉사자들과 아침부터 함께 일을 시작했고 점심은 물론, 족구도 하고 간식과 찜도 함께했다. 낮 무렵 현장을 찾은 지영이(14)도 아빠를 돕겠다고 300시간 채우기를 위해 출근카드에 시간을 적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현장에선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종대 해비타트 동아리(CCYP) 소속의 건축공학 10학년, 스무 살 지민이의 웃음소리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사춘기 소녀마냥 온몸에 하얀 빠데(putty/퍼티), 산화주석이나 탄산칼슘을 12~18%의 건성유로 반죽한 물질, 유리창 틀을 붙이거나 철관을 잇는 데 쓴다)가 묻는 줄도 모르고, 건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건축이란 '햇살'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는 공간의 창조라 답하며 수줍게 웃었다.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씩씩하게 파이프를 날랐던 세종대 건축학 07학년 동은이(24)도 현장에서의 하루를 "건축 자체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어 기뻐다." 라고 말하며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한국 해비타트의 봉사자침에 따라 자비로 참가비를 내고 활동에 참여했다. 자원봉사를 위해 스스로 돈을 내면서까지 이곳을 찾은 봉사자들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정가남 팀장은 '봉사자들 스스로의 봉사취지와 의지, 열정의 반영이다'고 말하며 자부심 가득하게 웃어보였다.

사람들 품는 것이 건축

그 리 움 을 담아

'돌아가고 있어요'

12월 완공될 이곳은 앞머리에 '나, 내' 보다 '우리'가 더 잘 어울리는 '집'이란 호칭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힘으로 직접 올린 지붕과 손수 세운 벽은 그 어느 공간보다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런 모습으로 이 추운 계절을, 냉혹한 현실을 녹여줄 것이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날 때부터 한 몸이었던 듯 그리움을 담아 '돌아간다'고 말할 것이며, 그들의 삶에서는 '정착'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홈 파트너 7세대 가정에 아무리 길어도 불만 없을 '집 주소'가 생긴 날, 사람들은 집을 지으며 자꾸 웃었다. 따뜻했다.



작업 현장